

#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키로

##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방침

- 홍보부 -

축산농민의 17년래 숙원인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이 내년초부터 전 축산농가에 확대 적용된다.

신한국당은 지난 10월 23일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열고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현재 부업규모의 영세 축산농가에서 전기업 축산농가까지 전면 확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소를 제외한 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실장, 황병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만나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한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은 재경원 등 관련부처에 축산농가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당정회의 개최를 요청해 놓았고,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의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각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신한국당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10월 23일 발표하였다.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이 성명서에서 신한국당이 축산농민의 17년래 숙원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을 시행키로 결정한 것을 전국의 100만 축산농민과 더불어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실의에 빠진 축산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소임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축산농민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축산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가축의 주요 질병 박멸대책과 가축분뇨 처리문제, 도축처리, 유통분야의 현대화, 제도 정비 등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 선진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회를 주축으로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전동용)은 지난 17년간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 청와대, 정부(재경원, 농림부), 각 정당, 국회에 건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축산농가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을 제출하는 등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최근에 전동용 회장은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의원입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배합사료 영세율의 전체 축산농가 적용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이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전면 적용될

경우 연간 2,200여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계속된 국제사료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축산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때, 신한국당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 결정은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줌과 동시에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된 것이다.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을 환영합니다

신한국당이 10월 23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축산농민의 17년래 숙원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국의 100만 축산농민과 더불어 열렬히 환영하며 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에 감사드립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이미 완전개방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전면수입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사상 유래없는 폭등으로 축산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이때 신한국당에서 취한 고뇌에 찬 결정은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열악한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로서 전 축산농민들과 함께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축산농민들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전면 적용될 경우 연간 2,200여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맡은 소임을 다할 작정입니다.

전국의 100만 축산농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을 위한 관련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한시바빠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이번 결정을 기회로 축산업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축산농민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축산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가축의 주요 질병 박멸대책과 가축분뇨 처리문제, 도축처리, 유통분야의 현대화, 제도정비 등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 선진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신한국당에 감사드리로, 오늘 결정이 있기까지 적극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96년 10월 23일

###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전 동 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	한국사료협회	회장 이병석
한국양봉협회	회장 정해운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박석남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회장 김우열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영진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이오직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회장 김택열
한국육가공협회	회장 박재복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회장 김홍국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설동섭		